

“행정시장 직선제 적극 조력”

제주도의회, 최근 집행부에 공식 의견 전달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위한 제도개선 요구
“부결 가능성”... 주민투표 사실상 반대 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적극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개선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주 제주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사실상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임시회에서 도민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판단해 직선제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결 처리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면서도 “그동안 알려진 대로 하나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43명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 때 도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는데도 투표율이 36.7%에 불과했던 것처럼 주민투표의 개함 요건인 투표율 33.3%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주민투표법은 문제가 많아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개함이 못하고 부결될 수 있는 상황

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건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받은 회신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협의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완곡한 표현이었고, 주민투표 장단점을 비교해 제주도가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며 “만일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 직선제를 요구한다면 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따를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하면 두 달 정도 중앙부처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언제 국회에 제출하게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2019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이 2일 대산원의 막을 내렸다. 행사 마지막날 사려니숲을 찾은 탐방객들이 녹음이 무성한 숲길을 걸으며 에코힐링을 즐기고 있다. 행사 기간에만 한시 개방했던 물찾오름과 성판악·사려니오름 코스는 탐방이 제한된다.

숲길 함께 걸으며 제주산림문화 만끽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어제 성황리 마무리
국내외 탐방객 5만명 숲길 걷고 체험행사 즐겨
행사기간 한시개방 물찾오름·사려니코스 인기

올해로 열한번째를 맞은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은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숲을 일상에서 가까운 존재로 끌어들이며 명품 산림문화체험의 장임을 인식시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려니숲은 200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안에 위치하면서 숲이 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등 숲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고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붉은오름 입구 특설무대에서 개막한 ‘2019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이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사 마지막날인 2일 오전 10시 붉은오름 입구 개막식장에서 출발해 월든 삼거리-남원을 한남리 사려니오름까지 14km를 걷는 ‘사려니숲 에코힐링 대행진’이 진행돼 탐방객들이 자

유롭게 숲길을 걸었다. 특히 이 코스는 행사기간에만 한시 개방하는 코스여서 마지막날에도 발길이 이어졌다.

9일간의 행사기간에 사려니숲길에는 약 5만여명(잠정)의 탐방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평탄한 지형의 숲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부담이 없어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운 가족단위 탐방객이 많았고, 휠체어를 탄 고령자들도 눈에 띄었다.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에 맞춰 아내와 제주를 찾았다는 이권희(부산시)씨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다양한 식물대가 분포하는 원시의 숲길을 걷는다는 것은 제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며 “사려니숲 탐방만 세번째인데, 이번엔 물찾오름을 오를 생각”이라고 했다.

사려니숲 에코힐링은 지난달 25일 개막 후 주말마다 특설무대에서 공연과 북&콘서트,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숲길을 걷는 전문가탐방이 진행됐다. 특별무대 주변에선 자연환경해설사 등이 진행하는 에코팔찌

만들기, 숲속 오징어 나비 만들기 등 진행돼 숲에서의 이색 추억을 선사했다.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숲속 테마체험교실도 세 차례 진행된 숲의 재료를 활용한 체험활동과 숲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연휴식년제로 평소엔 출입이 통제되던 행사기간에만 한시 개방했던 물찾오름과 성판악 코스, 사려니오름 코스는 행사가 끝나면서 탐방이 제한된다. 또 서귀포시 남원을 한남리 사려니오름 탐방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인터넷 사이트(제주시협림 탐방예약)에서 사전예약 후 서성로 방면 출입구로만 입장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예산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시행

재정운용 효율화 차원...
도, 이월사업 감축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월제도 운영방식을 개선·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월예산은 단년도 회계연도 제도에서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해 다년도에 걸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예산의 연도말 집중 집행 예방, 공공서비스 단절 방지 등 탄력적 예산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이다.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던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을 이월사업 감축 원년으로 삼아 연도내 집

행 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주요 사업 모니터링 확대, 집행부진사업 삭감 후 재투자, 이월사업 승인기준 명확화 등 이월예산 축소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2~2017) 평균 11.8%였던 이월예산비율이 7.7%대로 떨어져 2018회계연도 이월예산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2월(정리추경)에 심의하던 이월제도를 자체예산 편성 사업은 5월(1회추경, 2019년도의 경우 2회 추경)과 국고보조사업은 12월(정리추경)로 분리해 심의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는 기존 제도가 이월승인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심의 전까지 이월예산의 규모 예측이 힘들뿐만 아니라, 이월예산규모와 불용예산규모가 상호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미집행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월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집행불가 사업 예산 삭감 후 신규 우선순위 사업 재편성의 용이, 미집행 예산규모 축소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이월사업 집행관리책임관’ 제도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월사업 집행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월예산이 지연 없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축개원기념일

슬로우 성형외과의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항상 보답하는 슬로우 성형외과의원이 되겠습니다

제 170516-증-83148호

☎ 064-900-2600

📍 제주시 노형 8길3, 우학빌딩 5~7층

TALK ID: 슬로우성형외과